

# 파김치

글 이진영(고양시 일산서구)

실파처럼 하나 둘, 어느새 대파가 되어 관통하고 있는 시간들  
나란 사람이 언제, 맨 땅에 이만한 역사를 세웠던가  
사계(四季)가 담긴 어머니의 고독한 주름, 그러니 자꾸 아파  
자꾸만 쑤셔 와, 이젠 세월이 된통 몸살 났나 봐

눈에도 추억이 넘쳐서인가,  
그렇게 지긋지긋했던 세상도 뿐여니 제법 아름답기까지 하네  
이런, 내 정신 좀 봐, 파김치를 담근다고 해놓고는…

마늘이랑 고춧가루랑 액젓도 넣어 맛있게 담가봐야지  
자식 녀석들 나눠주려면 이번 김치도 용량초과겠네  
빨간 고추도 넉넉히 갈아 넣어 감칠맛을 살려 볼까나,  
그런데 낡아 버린 입이 짜져서 간을 맞출 수 있을지 모르겠어

그녀의 삶이 담긴 파김치  
그녀의 생(生)을 고스란히 담은 파김치  
언제까지나 먹고 싶지만, 그렇게는 먹을 수 없는 파김치

태어나 처음 배운 단어 ‘엄마’의 손맛이 아니라면 탄생할 수 없었을  
우리를 위해 마음속으로 수만 번도 더 버무리고 또 버무렸을 그녀의 작품  
먹어보지 않아도 이번 파김치 역시 지상 최고의 맛이리라. ☺

